

## 강령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김완자 편집인: 조봉호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 당일빌딩 301호 전화: 전국 02-675-9068 (FAX: 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서울 02-634-6508 02-634-4359 (FAX: 02-634-4359) 충주 0441-42-1217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 051-246-1628)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광주 062-526-6992 (FAX: 062-529-1552) 마산 0551-48-6264 (FAX: 0551-43-6496) 대구 053-781-3911 동해 0394-33-7784 이리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2-1221



## 대위원 대회 및 전국 연수 실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지난 1년을 평가하고 95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대의원 대회 및 전국 연수가 호남권 학부모회의 주관으로 1월 18, 19일 이틀 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는 지난 94년도에 대한 활동평가(오성숙 정책실장)를 하고 9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기초 발제(조명숙 부회장)를 하게 된다. 발제 내용은 교육위원회 참관사업, 고교입시부활반대, 지방 자치단체 장선거, 타단체와의 연대 사업의 내용이 발표된다.

또 각 지회가 1년동안 활동해온 내용을 가지고 네개의 지회가 사례 발표를 하게 된다. 전주지회는 '열린자리' 사례발표, 강서남지회는 학부모,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독서방, 종이접기), 마산지회는 소모임 활동, 부산지회는 학생사업(토요학교, 한새학교)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입시부활에 대한 발제(이재천 전주지회장)와 지방자치제 속에서 풀어내는 학부모 운동 및 사례발표(강사 미정)에 대한 강연도 있게 된다.

## 중학진학 대상자 유급 위기

## 두밀분교 8차 공판

지난 20일 오전 10시 10분 서초동 법원청사 413호 법정. 두밀분교 학생들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소송 8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별다른 심리없이 학부모 20여명이 출석한 가운데 증거제출과 학부모인 왕모씨에 대한 증인채택만을 하고 10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기일은 1월 24일.

폐교통보 이후 두밀사태는 주민들의 진정서 제출→어린이의 등교거부→학생명의의 소송 제기→일부 학생들의 등교와 소송이탈→대법원의 폐교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유급위

기등으로 상황이 바뀌며 1년을 끌어왔다.

학생 25명중 8명만 인근 상색국교와 가평국교에 통학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마을회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들 중을 중학진학 대상자인 6학년생 2명은 현재 유급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두밀분교 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만큼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판결이 요구된다.

▲ 새해가 다시 밝아왔다.

이 땅에 참교육을 바르게 심기위해 다시 한번 뛰어가야 하는 새해아침.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에 희망이 솟는다.





사 설

# 95년 학부모회 활동 전망

작년은 군사통치로 인한 개발독재의 후유증으로 큰 사고가 바다와 땅, 하늘을 가려 시민들의 일상엔 불안의 연속이었다. 올해만큼은 어미돼지 젖을 고루 나눠먹는 새끼돼지처럼 모든이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주는 한해가 되어야겠다.

95년은 우리 학부모회로서도 매우 중요한 한해다. 한국 정치사에 큰 고비를 이루는 4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교육계에서는 UR협정으로 기술, 예체능 학원이 외국자본에 개방될 것이다. 또한 세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공세속에 고교평준화 해제가 시행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34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체제에서 지방분권적인 시민참여체제로 바뀌어가는 좋은 기회를 선사할 것이며 우리에게도 적극적인 교육참여 운동을 벌일 수 있는 기초적인 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제는 정치가 생활과는 동떨어진 정치꾼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생활 정치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학부모회도 중,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 운동을 펼칠 수 있어야겠고 다가오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교육개혁의 염원이 실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합해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사고, 자질, 정책등을 공개검증하여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정책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을 뽑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화와 개방화에 맞춰 외국의 교육자본이 국내의 영세한 자본을 침식해서 교육식민지화할 우려가 높은 데도 학부모들은 밀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무력감과 곤혹감을 가지고 있다. 외국자본유입에는 필연적으로 외국문화가 따른다고 볼 때에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의 장으로의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일말의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공교육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함에도 현재의 교육현실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입시경쟁 교육으로 내몰고 있다. 교육의 개방화와 맥락을 같이하여 내놓은 것이 고교평준화해제 방침이다. 고교평준화 해제는 평등의 원리보다는 경쟁의 원리를 중시하는 수월성 정책이다. 지금 공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국민학교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더욱 절실한 것이 바로 공교육을 지탱하고 있는 평등의 원리임은 자명하다.

95년을 바라보면서 학부모회로서는 할 일이 많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세우면서 동시에 현재 뿌리내리고 있는 작업들과 고교평준화해제에 맞서서 그 대안들을 찾아야겠고, 지역운동의 구심체로서 학부모회가 그 역할의 일부를 떠맡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자, 힘차게 시작하자.

## 교육부, 대입정원 99학년도에 전면 자율화

교육부는 구랍 8일 대학 입학정원과 학사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정원 및 학사 개혁방안'에 따르면 96학년도에는 1단계로 교육부가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해 대학별로 계열별 정원을 통보해 주면 이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부와 학과의 신설이나 폐지, 과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97학년도부터는 교육부의 교육

여건평가를 통과한 대학에 대해서는 증원규모도 자율 결정토록 하고, 99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에 정원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96학년도부터 현행 2학기제 외에 3~4학기제를 도입하고, 학기당 16주로 돼있는 수업일수와 1백 40학점으로 돼있는 졸업이수학점 등 대학 학사와 관련된 모든 규제도 완전 철폐,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 전남도교육청, 통합고교군제 도입

전남도 교육청은 구랍 7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일반계고교와 실업계고교가 고루 분포되도록 1~2개시와 군지역을 1개 통합고교군으로 묶는 지역별 '통합고교군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고교군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1학년때에는 인문계와

실업계간, 2학년때에는 실업계고교와 학과간, 3학년은 실업계 학과간 전학이 허용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계획에 따라 도내 10여개 통합군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1년간 시험기간을 거쳐 97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 교육민회, 고교성적평가제도 개선요구

'교육개혁과 교육자치제를 위한 시민회의'는 지난 11월 24일 '내신제도 및 평가제도 개혁에 관한 토론회'에서 현재 전체과목성적을 토대로 내신성적을 내는 서열중심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장점과 성취기준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민회는 새로운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통필수과목을 대폭 줄이고 선택과목의 폭을 넓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교과목별 성취기준으로 평가, 학생개인의 평가 원자료를 대학 선발자료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청소년들 통일관, '자기 중심적'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통일 때문에 개인이 희생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 김성이 교수와 한국방송개발원 김기태 책임연구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시내 남녀 중·고교생 7백33명을 대상으로 '북한관련 언론보도내용이 청소년 통일관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7%가 '희생을 최소화하거나 희생없이' 통일돼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통일돼야 한다'는 8%에 지나지 않았다.

또 '통일을 위해 개인은 어느 정도 희생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45%가 '절대로 개인이 희생돼서는 안된다' 또는 '조금만 희생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 주요기사

- 3면 외장 새에 인사
- 4면 박물관 순례
- 5면 고교 평준화 폐지 적절인가
- 7면 미래의 유망직종 — 영상 번역가

조은일에세이

##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 빵점엄마 조은일의 화려한 작가일기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한 아들 용걸이에 대한 아픔, 다섯 식구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는 큼직한 문패, 무단결석한 딸과 함께 여행을 떠난 이야기 등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조은일 씨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빵점엄마 백점일기』 출간 이후 평범한 주부에서 자녀교육의 기수로, 참교육의 선두주자로, 그리고 유명작가(?)로 변화하면서 겪은 방송출연, 강연, 글쓰기, 사람 만나기 등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글로 옮겼다. 문학지나 일간지에 등단한 것이 아니라 주부다운 글쓰기로 세상에 알려진 조은일 씨의 작가경험은 주부들에게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조은일



신국판/200쪽  
값 5,000원

## 부모를 돕는 책 시리즈

- 1 부모가 도와주는 행복한 그림그리기  
아이의 그림으로 말한다  
박금숙·이은순 지음
- 2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하는 책  
이제는 좋은 아버지가 되자  
좋은아버지되려는사람들의모임 지음
- 3 외동아이가 잘 키우기  
하나 키우기 둘보다 어렵더라  
기순신·함희숙 지음
- 4 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한 글쓰기  
우리아이 글쓰기, 이렇게 도와주자  
김명숙 지음
- 5 가족신문 만들기  
우리집에서도 신문이 나와요  
곽정란 지음

아이와 장난감  
⑥ 놀면서 배우요  
문미옥 지음 <근간>

부모-자녀 관계  
⑦ 자녀와 공감이 맞습니까  
이혜련·김성은·이기연 지음 <근간>

영어 적기 교육  
⑧ 우리아이 영어공부, 이렇게 도와주자  
최진환 지음 <근간>



주소: (120-180) 서대문구 창천동 502-7 (2층)  
전화: 324-1885 / 팩스: 336-1639



## 신년사



##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감격에 찬 새해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하는 것과 민족적 아픔이었던 일제 침략으로부터의 해방이 5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제의 왜곡된 교육제도를 모방 뿌리내렸던 잔재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권위와 통제로 일관, 존속된 교육의 현실에서 그 고리의 끈을 끊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의미있는 해라고 봅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온 우리는 역사의 전환에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주부라는 것과 여성이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속에서 헌신과 봉사로 5년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단체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비록 지명도가 높은 명망가가 없어서 대외적으로 힘을 보이는데 어려움은 있을 지라도 자발적인 모임으로서 우리같이 대중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단체가 전국에 몇개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우리의 방향을 지역운동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교육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외에도 올바른 공동체 주민운동이나 구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여성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핵심주체

로서 우리의 할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성장함은 물론 지방의 여러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벽두부터 우리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은 고교평준화 해제문제와 급식시설설치비용 예산 누락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껏 해오던 태도보다도 한층 활발한 활동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책임져야 했던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 앞에서 멈칫 멈칫하다가 놓쳐버린 일이 많았던 것

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에만 매달려 끈끈한 정을 나누는데 소홀했던 부분을 채우고, 우리 서로가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며, 각자의 노고를 치하해주고 각기 다른 자신의 몫을 굳은 각오로 감당해 나갑시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학부모회와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말없이 참고 견뎌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지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95년을 우리 단체가 비약 발전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김완자 회장



# 강서남지회가 함께 한 시민운동

## 우장산 살리기

우장산 지키기에 성공한 승리의 행진이 사물놀이패를 앞세우고 12월 11일 2시, 우장산에서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강서구 청소년 회관에서 '떡잔치가 벌어지고, KBS '6시 내고향' TV카메라맨들이 주민들의 춤과 노래 자랑을 찍느라 바빴다.

이 지역 주민들이 지난 넉달동안 우장산에 체육센터를 짓겠다는 강서구청에 맞서 싸워 이긴 승리의 자축연이었다.

94년 8월 18일 아침, 공음과 함께 놀란 주민들이 산에 올라와 보았을 때는 이미 1백여평의 나무가 잘려져 나갔고, 땅이 파헤쳐져 있었다. 주민들은 나무를 부둥켜 안고 공사를 막았다.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을 훼손해 주민을 위한 체육센터를 짓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더 이상 나무를 베지 못하게 나무마다 끈을 묶었다. 천막을 치고 30~40여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아주머니들이 날마다 산을 지켰다.

젊은 엄마들은 1백여일을 하루같이 칼국수를 삶아 점심을 산으로 날랐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우리 산은 우리가 지킨다는 '푸른숲 지키기 주민회'를 구성했다. 10월 19일은 투쟁의 날이었다. 5백여명의 전경과 구청 직원들이 공사를 막는 2백여명 주민을 대

상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 주민들은 맨몸으로 막았다.

'우장산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우장산 살리기 걷기대회' (10월 23일)와 '자연사랑 백일장 및 사생대회' (11월 5일)를 열었다. 각 행사 때마다 1천여명이 넘는 강서·양천주민들이 모여들어 목청껏 외쳤다. 어떤 어린이는 대통령 아저씨께, "제발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정치를 잘 해주세요"

학교에서 배운대로 쓸 말도 많았다. 마침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1월 28일 "강서구청은 행정상의 위법성은 없으나 불합리한 판단이므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체육센터를 다른 곳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마지막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제 우장산에 가면, '우장산 국수 아주머니'도 있고 '우장산 잔 다르크'도 있다. 주민 아무개씨는 지금까지는 가족만 위해 살아왔는데 우장산 싸움을 하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참된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충위의 한 관계자가 구청직원에게 "우장산의 주인은 주민이다"라고 한 말이 기억에 생생히 남는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제는 주민을 위한 정치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신효종 강서남지회장)

## 인터뷰

인천지부

## 박인옥 부회장을 찾아서



인천지역 고교진학 탈락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끝내고 지난 12월 기자회견 때까지 해 많은 여론을 불러일

으킨 인천지부(회장 이순신)의 부회장 박인옥씨를 만났다.

"인천지역의 고교진학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회원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당장 고교진학에서 3천5백여명의 중학생이 진학을 포기하든지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강요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주위의 학부모들 이야기와 중학교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에 대해 무척 많이 고민하더라구요."

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지역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 고교진학 탈락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박인옥씨는 직접 작성하고 여기저기 뛰어 다녔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인천지부를 끈끈한 인간관계로 이끌어가는 이순신회장과 늘 묵묵히 도와주는 임원들의 힘이 컸다고 겸손해하는 박인옥씨는 인천지부의 부회장을 맡은 일꾼.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이 한겨레, 경인일보 등 지역신문 여러군데에 실리면서 학부모들에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은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구요."

바로 서울 옆에 있으면서도 서울지부와는 별도로 소리없이 묵묵히 일해온 인천지부가 그동안 해온 일은 꽤 알찬 편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 풍물교실' '예비 학부모교실' '글쓰기 교실' 등이 그것이다. 94년 처음 시작한 인천지역의 유적지, 산의 모양 등을 학부모와 아이가 함께 답사하고 공부하는 '자연학습' 프로그램도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의 중점 사업은 인천이라는 도시가 공단지역이 많은 만큼 사원 대부분이 학부모인 기업체의 사보에 학부모회를 소개하고 홍보하겠다는 것. 앞으로 보다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여 인천지역의 교육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다.

공단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노동자 회원이 많다는 점이 다른 지회와의 다른 점이며 회원들이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 교장, 교감선생님을 직접 만나며 교육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지역 학부모들의 호응이 크다는 점을 박인옥씨는 인천지부의 자랑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소리없이 소문 안나게 활동하는 것이 인천지부의 특징이지요. 그래서였는지 지난번 여름 연수회에서 우리를 '문제지회'라고 지적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지부만큼 인간관계가 두터운 곳도 흔치 않을 거예요."

처음 학부모회 활동을 할 때는 귀가시간이나 아이들을 두고 다녀야하는 점 때문에 남편과 다투기도 했다는 박인옥씨.

"지금요? 남편 직장이 서울 양평동인데 퇴근길에 당산동 전국 사무실에 들러 배달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학부모신문, 수익사업으로 하는 약재, 책 등 굵은 심부름은 맡겨만 달래요. 얼마전에는 학부모회 부부동반 모임에도 함께 참석해 주었지요. 이런 교육문제에 오히려 저보다도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어머니만 학부모가 아니라 아버지도 학부모다. 따라서 부모 모두의 책임감이 내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박인옥씨의 생각이다. 아이들도 처음엔 엄마가 나가는 것을 싫어했지만 지금은 큰아이(국2)가 동생(6)에게 점심도 차려주는 등 엄마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일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인다며 남편자랑, 아이자랑이 대단하다.

(조봉호 기자)



◇ 방학동안 가 볼 수 있는 박물관

# 아이와 함께 느껴보는 조상의 지혜

겨울방학에 아이들을 학원이나 놀이터로 보내지 말고 아이 손을 잡고 산교육장으로 나가 보자. 점점 서양화되어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기회를 가져보자. 전국 각지에 특수한 주제를 가진 박물관을 이용하면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가르쳐줄 수 있다.

## 명가 김치박물관

우리나라의 특색있는 음식문화의 하나인 김치를 주제로 한 박물관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중앙광장에 자리잡고 있다.

김치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문헌 및 유물, 김치의 원료를 알 수 있는 서화류와 용기, 김치를 저장하는 용구를 전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파라핀으로 실재모양 그대로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1월 1~2일과 설날, 추석 연휴에만 휴관하며 관람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문의전화는 (02) 562-1075

## 농업박물관

서울시 중구 충정로에 세워진 이 박물관은 우리 조상 전래의 농경문화의 유산을 수집하여 보존하면서 현명한 선조의 지혜를 배우고 애농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문 박물관이다. 시대별로 나눈 선사시대실, 삼국시대실, 고려·조선시대실, 농가월령실, 농기구 분포실, 협동유적실 등 6개의 전시실을 마련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변화된 각종 농기구, 생활용구, 농사법에 대한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다. 유물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실용성과 견고함에서 선조들이 가졌던 지혜를 다시 느낄 수 있다. 일

요일·공휴일·국경일에 휴관하며 관람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다. 관람료는 어른300원, 어린이 150원이나 단체는 할인된다.

문의전화는 (02) 397-5673

## 짚·풀 생활사 박물관

우리나라 전통의 짚과 풀을 이용하여 만든 생활용구와 민속 자료들을 수집 보존하고 연구하는 전문 박물관으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다. 벗짚은 보기에 허술해 보여도 잘 끊기지 않아 농한기에 여인네들이 무엇을 엮거나 그릇을 만드는 데 쓰였다. 소박하지만 나름대로의 미적인 감각이 엿보이는 유물을 통해 당시 서민 생활의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소재로 갖가지 생활용구를 만들어서 사용한 조상의 슬기를 느낄 수 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만 개관하며 관람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문의전화는 (02) 516-5585

## 태평양박물관

우리나라 여성문화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화장용구와 재료, 장신구 등을 중점으로 모아 전시하고 있다. 전시품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에서부터 대한제국시대의 것까지 시대별로 나누어져 있다. 다양한 종류의 유물 하나하나가 여성생활사의 변천을 말해주고 있다. 화장에 관련된 유물 이외에 차 박물관인 다례실(茶藝室)을 만들어 차문화사(다례, 다도구, 다서, 다화)에 따른 전통문화 생활상도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으며 일요일, 공휴일만 휴관한다(단 2일전 예약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토요일은 낮 12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문의전화는 (02) 832-3486

## 해강도자 미술관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시한 이 박물관은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수광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청자 1백22점, 백자 98점, 분청사기 26점을 비롯하여 미술사적인 자료들과 도편(陶片)에 이르기까지 2백40여 점이 진열되어 있다. 1층 한쪽에 해강 기념실이 있는데 그가 평생을 바쳐 재현해 낸 고려청자의 비색을 살려 만든 청자와 자료가 있다. 다른 박물관과 달리 명품은 물론 실패한 것과 당시에 나름대로 유약실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자편까지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자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은 휴관하며 관람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다. 관람료는 일반 1,000원, 중고생 500원, 국교생은 200원이다. 단체는 할인된다.

문의전화 (0336) 34-2266~7

## 마사박물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서울경마장 내에 있는 이 박물관은 마사회가 말(馬)문화를 발굴 보존하기 위해 설립한 말 전문 박물관이다. 말문화와 관련된 유물들과 말갖춤(안장, 발걸이, 말방울 등) 일체와 말에 관한 의학서적 및 민속자료와 우역관계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된 유물들은 청동, 철기, 자기, 토기, 목기, 파혁, 섬유류 등의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중무휴이며 개관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문의전화는 (02) 500-1283~5

## 화폐박물관

조폐공사가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에 설립한 이 박물관에는 국내 최초의 화폐에서부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화폐가 시대별·종류별로 전시되어 있다. 그밖에 국내의 우표와 크리스마스철, 조폐공사에서 만든 각종 훈장과 메달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80여개 국의 은행권 및 주화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화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10단계의 과정을 사진으로 자세히 보여주며 화폐제조의 기계 모형이 있다.

한눈에 화폐의 역사를 관람할 수 있는 멀티슬라이드도 있다.

공휴일 다음날과 설날·추석 연휴만 휴관하며 관람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문의전화는 (042) 861-5201~20

## 참소리 축음기 오디오 박물관

국내 최초이며 세계 유일의 축음기 박물관은 사람의 혼을 빼앗아 간다고 여기던 도깨비상자 납관식 축음기에서부터 오늘날 최신식 스테레오 전축까지 그 소리와 모습까지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전시된 기기들을 통해 세계 오디오 100년사를 비교해 보고 소리

100년사를 감상할 수 있다.

강릉시 송정동 소라아파트 관리동 3층에 있으며 연중 무휴로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다. 관람료는 어른 3,500원 학생 2,500원 어린이 1,500원이며 단체는 할인이 된다.

문의전화는 (0391) 41-2500, 42-1198

## 건들바우 박물관

우리네 민속신앙의 유물들이 모아져 있는 이 박물관은 대구시 중구 대봉2동에 있다.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에서는 마을신앙, 가정신앙, 무속신앙에 관한 유물과 자료들이, 2층에는 점복, 주술, 민속 불교, 조상숭배에 관한 유물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앞으로 3층에 시청각실을 마련하여 무속관련 비디오를 상영할 예정이다.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였던 민속신앙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다.

휴관일은 일요일이며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다. 관람료는 일반 1,000원, 학생 500원이다.

문의전화는 (053) 421-6677

〈김해순 기자〉

## 교육 모임 모4터

### 『역사의 라이벌』을 보고

토요일 오후 8시 KBS(1)에서 방송되는 『역사의 라이벌』(연출: 임기준)은 한마디로 교양 TV프로그램의 새 가능성을 보여주는 참신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그간 방영된 '원균과 이순신', '최영과 이성계', '정도전과 정몽주', '대원군과 명성황후', '장희빈과 인현왕

후' 등 같은시대에 역사의 전면에 부상했으나 서로 대립된 입장에 처했던 인물들을 오늘의 시각으로 새롭게 재조명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천하에 둘도 없는 문무겸비의 충신 이순신과 간교한 모사꾼 졸장 원균', '쇄국정책과 대외개방의 양대 화신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숙종의 마음을 빼앗은 질투와 모략의 악녀 장희빈, 그리고 어질고 현숙한 인현왕후' 등 양극으로 치닫는 피상적인 인물에 대한 시각이 TV를 보면서 차분하게 교정되어진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그간 정통을 자부했

던 TV사극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 『한명회』 등에서 보아왔던 천편일률적인 왕조 중심의 시각, 특히 권력을 둘러싼 궁중여인들의 알력과 치맛바람을 '비화'란 이름으로 왜곡된 역사인식에 정말 진저리쳐 왔다. 『역사의 라이벌』은 분명 사극은 아니다. 그러나 시대상황의 재현을 통해 그 시대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인물 중심이 아닌 정치세력의 역학관계로 인물의 등장 부침을 이해시키려는 노력,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에 정면 대응했던 인물을 직접 불러내어 오늘의 시각에서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느냐?'며 솔직한 이유를 듣는 청문회식의 진행은 사극이상의 교양이고 재미이다.

다만 방송순서상, 이순신, 이성계, 대원군, 장희빈 등 시대흐름에 일관성이 없던 면도 보였지만, 중간 중간 요점과 흐름을 짚어주는 고원정씨의 역할은 절제되고 깔끔하다.

우리는 어쩌면 거칠고 생경한 게다가 강요하는 주입식 교양프로그램에 너무 식상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의 라이벌』은 부드러움과 재미를 겸비하면서도 '흑백논리'와 '양자택일'의 경직되고 억압된 사고체계를 벗어나 유연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정규 교과과정에서도 놓치고 지나가기 쉬웠던 '구조적 역사의식'의 훈련을 TV에서 받고있는 셈이다. 공영방송의 수준높은 교양프로그램에 시청자를 재교육해준다는 의미로 기대를 걸어본다.

그러나, 욕의 티랄까? 『역사의 라이벌』이 일본 NHK의 『라이벌 일본사』의 '노골적 베끼기'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어 개운찮은 감이 있지만, 모처럼의 흥미로운 교양프로에 거는 시청자들의 기대를 프로의 질과 내용으로 부응해주기 바란다.

〈조은경 정리〉



# 고교 평준화 폐지 과연 적절한가

## 교사이야기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고입 평준화 정책을 바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교입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의 평준화와 수월성 중에서 수월성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그 변화의 기본 방향은 평준화의 단계적 해체이다. 현행 교육으로는 질 높은 인재를 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립형 학교부터 학생선발과 등록금 책정의 자율권을 주어 결국 단계적으로 평준화의

및 초·중등 교육 전체의 모습이 단지 고교입시를 부활한다고 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성과로 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세번째로 학교간의 위계구조화와 위화감, 그리고 이것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

전통과 대학진학율에 따라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구별되고 소위 명문고(?)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사이의 괴리감은 지금 우리 사회

## 학부모이야기

한창 뛰놀며 자라야 할 나이의 아이들을 입시지옥에서 탈출시켜준 고교평준화정책이 김숙희 교육부장관의 소신으로 곧 폐기될거라 한다.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사립고교에 학생선발권을 주고 등록금도 자율화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육의 수월성은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공교육의 포기로 보이기 까지 한다. 사실 지금의 교육구조속에서(수월성은 얼마나 허망한지는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전체 중·고교의

다는 교육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터지는 큰 문제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입시위주의 사회를 바꾸고 전인교육을 해야 한다는 외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할 학교와 책임지고 있는 당국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소수 특권층의 교육욕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위해 애쓰는 모습이 차라리 처절하기까지 하다. 굳이 지존파를 말하지 않더라도 농촌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상대적 빈곤

## 학부모 부담가중 파행 교육 부채질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교육 개혁 위원회의 입장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한 교육책의 하나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 방안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본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고교입시부활에 따른 우리 사회의 교육 과열 현상이다.

평준화인 지금도 올바른 인격형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전인교육보다는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파행교육이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 고교입시 부활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만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두번째로 우려 되는 것은 현실적인 교육구조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학급당 50명씩이나 되는 과밀 학급, 교육기자재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인 실험, 실습,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더욱 심화, 고질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에 고교입시라는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력제고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전반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 사회환경과 아이들에 맞는 교육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일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한다. 한번 바꾸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동의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만큼의 사전 준비와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한다. 고교입시 부활이 앞으로 우리교육에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혼란만을 일으킨 채 흐지부지 되거나 않을지 걱정 해본다.

〈김장오 고교 교사〉

## 소외계층 상대적 빈곤감 유발

62%인 사립고교에 입시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지금도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은 모두가 하고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의 성인남녀 750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1.3%가 현행고교평준화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칭 문민정부가 탄생했을 때 전국민이 바라던 교육개혁은 "고교입시부활"이 아니었다. 대학입시를 위한 연간 2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바로잡고 고교입시지옥에서 아이들을 벗어나게 하여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와서 고교입시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전인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명색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장관이 빈부의 차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

에서 오는 좌절감을 달래줄 정책적 배려나 사회교육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라는 것을 볼때 수많은 아이들이 단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사람이라도 건지는 것이 교육의 근본정신임을 생각할 때 지금의 우리교육은 끌어 안고 함께가는 교육이 아니라 버리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개인의 불행이 사회속에서는 지존파의 경우처럼 결국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는 다함께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해서, 내 아이가 평생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이제 아무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살을 부비며 섞여 살아가야 할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임경란 마산〉

## 찬성입장

## 평준화 계속될 땐 학력의 하향 평준화 초래

교육부는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고교평준화제도를 전면 해체하기로 내부방침을 굳히고 여론의 향배를 저울질하고 있다.

평준화 해체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으나 지난 12월 중순 보고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준화제도 개선안 연구결과와 올 1월 중순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방침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개발원의 연구내용은 평준화를 해체할 것인지 아니면 존속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아니다.

전면적인 입시부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6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평준화를 해체할 것인지 등 평준화 해체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일 뿐이다. 평준화를 해체해야 한

다고 주장하는 논자들을 왕년의 명문고 출신이 많다.

평준화문제와 관련한 가장 큰 압력단체는 주로 명문고 동문회나 중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용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40대 중반의 한 대기업체 부장의 지론은 이렇다. 50명의 학급에서 10등까지의 학생은 학교수업을 지겹게 느낀다. 40등 이하의 아예 선생님의 설명을 알아듣지 못한다. 우수한 학생이나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 모두에게 평준화제도는 짐이 될 뿐이다.

이 때문에 평준화는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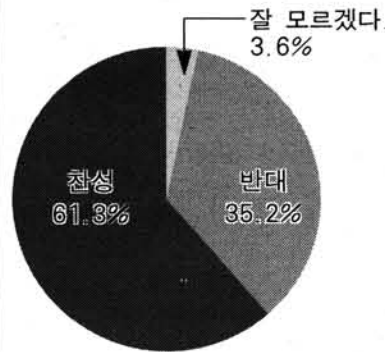
대량생산시대였던 70년대는 균질의 인력을 대량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지만 지금

은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므로 국가경쟁력을 위해 평준화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0대 회사원 이모씨는 형식상으로 고교입시 평준화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일류, 이류, 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적인 이유만으로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제공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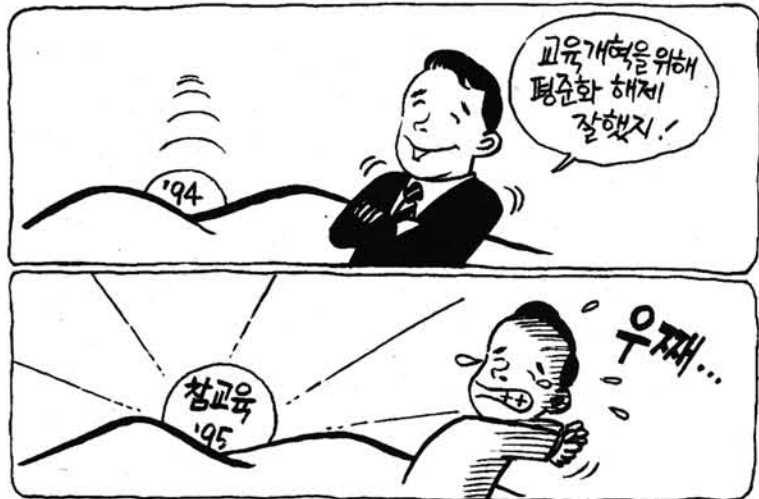
〈김은주 기자〉

-고교평준화제도의 계속 실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지난 12월 3-4일간 전국의 성인남녀 7백 5명을 상대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3%인 4백 32명이 현재의 고교평준화 제도를 계속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참조〉

## 학부모만평







#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4 당일빌딩 301호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6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언 ID HAKBUMO  
 채택 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딸과의 화해

중2 딸아이와의 갈등으로 누구를 만나기만하면 하소연하던 지난 여름, '참교육 학부모회' 회원으로 봉사하던 친구의 도움으로 학부모회에서 주선한 PET교육을 받게 되어 기대가 컸다. 그런데 막상 첫 강의를 듣고 나의 자녀교육 방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내용에 무척 당황하였다.

여지껏 딸아이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더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자식이라곤 딸아이가 전부인 나는 남보다 뛰어나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나의 틀에 맞추어 아이를 키운 것이다. '~해라', '~하면 안된다.'라는 명령어로만 14년간 길들여진 딸아이를 보니 이전 무엇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다보니, 내가 불안하여 혼자 하계끔 내버려 두지도 못하고 일일이 간섭하고, 비판하고, 잔소리, 화내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전부였다.

'그래 PET에서 배운대로 해보자'고 마음을 먹고 '반영적 경청', '나 전달'을 시도해 보았지만 조금도 나아진 면이 없는 가운데 8주가 끝나고 '참교육 학부모회' 사무실에서 4주간 후속 모임을 갖는 동안에 딸과 나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어 최악의 상태까지 오게 되었다.

실망과 비참한 심정으로 며칠을 보낸 뒤 더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나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부모역할

배워지는가'를 3번이나 반복해 읽고 나서야 여지껏 '나 전달'이 아닌 '너 전달'로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글로 써보기도 하고 혼자 연습도 하여 진솔한 나의 마음을 딸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의외로 아이의 반응은 빨리 왔다. 조금씩 자기 의사도 밝히고 문제점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기쁨을 딸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이다.

언제 엄마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불안해하던 딸의 표정이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는 나의 마음은 그 어느때보다도 편안하다. 설혹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예전처럼 조바심내지 않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만 칭찬해 줄 수 있는 나로 바뀌게 해준 PET와의 8주, 또 후속 모임 4주간은 94년도를 보내면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

14년동안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나의 횡포에 시달려온 내 딸에게 이 글을 통해 못난 엄마였다는 것을 용서받고 싶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 준 '참교육학부모회' 회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김현덕 강서남지회〉

## 학습준비물 유감

큰 아이를 국민학교에 입학시켜 놓고 내심 많은 걱정을 했다. 옷이며 가방, 학용품들 새것으로 사주지 않고 사촌들이 물려 준 것을 쓰도록 했는데, 혹시 그것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하는데 기가 죽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아이는 집에 와서 자주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것은 결국 화려하고도 예쁘게 생긴 새것으로 사달라는 간절한 요구였다. 그래도 나는 환경운동 차원을 내세워 아이를 힘겹게 달래곤 했다. 그러나 한가지 학과 준비물에 있어서는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 밀려나 아이의 요구에 따라가게되었다. 준비물이라는 것이 바로 다음날 가져가는 것이어서 손으로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준비해 주기가 애매했다.

그래서 학교 준비물에 많은 신경이 쓰였고 그러다보니 짜증이 났다. 그런 나에게 딸아이는 "엄마, 걱정마세요. 우리반 아이들 다 문방구에서 사와요. 문방구에 가면 다 있어요!", "음- 그렇구나. 그걸 몰랐네" 나는 아예 그 문방구 전화번호를 알아다가 수첩에 적어 놓고(정말 편하다는 생각만 하고서) 교과서 몇쪽에 필요한 준비물이 알람장에 써어 있으면 그 문방구에 전화를 해서 가격을 알아보고 등교하는 아이에게 돈만 쥐어 주면 되었다. 그것을 아이도 요구했고 좋아했다. 그렇게하고 있는데 같은 반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

다. 그대 딸 준비물은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는 전화내용이었다. 그엄마는 준비물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었다며, 그 내용을 세심하게 조목조목 이야기했다. 그 엄마의 말에 나는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그 전화로 많은 반성을 했고 준비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요즘 엄마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돈으로 사서 준비물을 해결해 준다면, 첫째, 창의성이 결여 될 것이고 둘째, 불량품 문제 세제,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문제와 가격상승효과 네째, 노력없이 돈으로 다 해결해버리려는 나쁜 생활태도를 키우게 된다. 거기다 선생님도 그 준비물을 다 사용하지 않고 지나가는 예가 허다하다. 내 생각으로는 과제물을 적어도 일주일 전에 예시해 주어서 집에서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위해서는 기존의 자모회가 학교행사때나 명절때 후원이나 대접을 주로하던 역할을 이제는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준비물과 같은 세심한 곳까지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바람직한 의견을 제안해 봐야겠다.

〈구연순 전주시 중화산동〉

## 진정 소중한 것들

늦게나마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과 생활속의 예의범절을 가르쳐야 될것 같아 두 딸에게 나 어릴적 있었던 일들을 옛날 이야기같이 많이 한다.

큰딸은 이해를 하고 받아 들이는 부분이 많지만 작은딸은 아직 어려 이해도 못하면서 단순히 엄마가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좋아 마냥 즐겨워 한다.

요즘 세상에 먹을것이 왜 이렇게 풍부하게 흘러 넘치는 것인지 도무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과자 이름들이 즐비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수입 과자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글들로 가득하다.

물질만능. 아이들은 먹을 것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고 조금 먹어 보고 맛이 없다고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살 수도 있다. 대부분 과자들이 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만 보기좋고 '맛있다고' 즐겨 찾고 먹는 데, 그 속에는 내 자녀를 소리없이 망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너무 많이 포함 되어 있다.

그래도 부모들은 내 자식에게 뭐가 부족한 것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구 사서 집안 구석구석에 채워 놓고 먹이니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

우리 어릴적엔 먹을것이 풍부하지가 않아 간식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간식이란 말 자체가 없었다.

많은 과자나 간식을 먹지 못해도 지금처럼 이름도 생소한 병에 걸리는 일이 없었다. 오로지 하루 세끼 밥 잘먹는것도 큰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가끔 고구마나 감자, 제철에 나오는 과일이 전부였다.

그것도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잘 먹는 편에 속했다.

어쩌다 껌이라도 사주시는 날엔 큰 즐거움이었다. 씹고 또 씹고 하루종일 씹어도 남는게 껌이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껌 조각이라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어쩌다 생긴 먹을 것은 할머니 먼저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 순서대로 내려오게 마련이었다.

장날이 되면 참 좋았다. 시장에 사람들이 가득하여 사고 팔고, 우리 많은것을 먹게 된다. 어머니께서 사오신 과자 봉지 우리 눈에는 그런것 밖에 보이지 않았다. 과자봉지, 속에서 나오는 크고 둥글둥글하면서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색이 줄줄이 들어있어 보지만 해도 맛있는 큰 사탕 한알은 한입에 다 들어 가지

도 않을 만큼 커서 한개를 쪼개고 쪼개어 순서대로 나누어 주었다.

어머니께서 칼로 쪼개고 있을때 우리 빙 둘러서서 어느것이 조금이라도 더 클까 눈여겨 보지만 제일 큰 것은 할머니 입안으로 그 다음은 막내동이 입안으로 난 왜 이렇게 작은것을 먹어야 하냐고 투덜거리지만, 어머니 입 속은 언제나 비어 있었다.

그 순간 꼭 그치지만 항상 불만이 가득했다. 그래도 모든것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면서 어른 공경을 배우고, 동생 돌보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옛날에는 생활 그 자체가 예의범절이었는데, 요즘은 돌아보면 나 자신부터 한심할 때가 많다.

핵가족이라 우리 네식구 예의범절 차릴것 많지 않고 보니, 자녀들이 보고 배울것이 우선 적다. 말해 봤자 잔소리로 들릴것이 뻔하다.

어떻게하면 자연스럽게 작은 과자 부스러기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가족에 대한 중요성과 예의범절을 가르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옛날 내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 해주면서 그 속에서 소중함과 예의범절을 가르치는게 아주 효과적 이었다.



이세상의 어두운 부분에서는 아직도 굶주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 일이 아니니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에겐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다.

우리 자녀에게 충직함을 주는 동시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될일이다.

작은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소중함을 느낄때 우리자녀가 바른마음을 가질수 있지 않을까.

〈박윤선 인천시 북구〉



#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⑤

## 대화를 가로 막는 걸림돌 15가지

지난번에는 올바른 경청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부모에게 호소하고자 할 때 진심으로 아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아이의 말문을 막는 태도에는 무엇이 있나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부모에게 털어 놓고 도움을 받고자 말문을 열었을 때 부모들의 잘못된 태도로 아이의 말문을 막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자녀는 '훈계하고 지도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아이의 말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이의 말을 중단시키고 설교하거나 비판하게 됩니다. 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려고 선부르게 조언이나 가르침으로 아이의 문제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이런 태도는 아이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아이의 고민을 더 가중시키게 되고 말문을 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녀의 마음 속에 슬픔, 분노, 좌절 등 문제로 가득 차 있어 우선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으로 부모에게 말을 꺼냈는데 이런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설교하고 분석하는 태도만을 보인다면 아이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자녀의 말문을 막는 부모의 잘못된 태도를 대화법에서는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흔히 사용하는 걸림돌에는 다음과 같은 15가지가 있습니다.

### 1. 명령, 강요

—'반드시, 꼭... 해야만 한다' 등의 표현으로서 자녀에게 공포감이나 저항을 유발시키며 반항적인 말대꾸를 유발시킵니다.

### 4. 충고, 해결방법 제시

—'...하는 게 어떻겠니?' '내가 충고하자면...' 등으로 의존성이나 저항심을 갖게 만듭니다.

아이 : 내 짝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엄마 : 그러면 니가 이렇게 해보아라.

### 5. 논리적인 설득, 논쟁

—'내가 왜 틀렸냐 하면...' "그래, 그렇지 만..."라는 걸림돌은 자녀가 열등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아빠 얘기는 어떤 때 너무 구식이야.

엄마:그래, 그렇지 만 어른은 나름대로의 경험에 있는 거란다.

### 6. 비평, 비난, 비판

—'무슨 애가 그 모양이냐' "넌 너무 게을러서..." 등의 말은 아이에게 자기비하의 감정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요번에 시험을 망쳤어요.

엄마:그것봐라, 맨날 놀기만 하더니...

### 7. 칭찬, 찬성

—'야, 너 참 잘했다' "네 말이 맞다" 등 엉뚱한 칭찬은 선심쓰는 것처럼 보이거나 부모의 기대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엄마, 미술학원에 이제 그만 다닐거야.

엄마:넌 미술에 타고난 소질이 있으니 계속해야 한다.

다음회에 계속됩니다

〈이정진 PET강사〉



아이:엄마, 나 숙제 하기 싫어요.

엄마:너, 숙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야.

### 2. 경고, 위협

—'만약... 하지 않으면' '...하는 게 좋을걸. 그렇지 않으면' 등의 어투를 쓰는 것으로서 원망, 분노, 반항의 감정을 갖게 만들고 공포감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아이:내 방 청소 안 할거야.

엄마:너, 청소 안해 놓기만 해봐, 혼날 줄 알아.

### 3. 훈계, 설교

—'...해야만 하는 거란다.' '...하는 것이 너의 책임이란다.' 자녀가 자기의 입장을 고집하고 방어하게 만듭니다. 의무감이나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아이:동생이 미워 죽겠어.

엄마:동생을 사랑해야지.

## 영상번역가

영상번역가는 외국에서 수입된 비디오물이나 영화등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길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책이나 서류등을 번역하는 일반번역가들이 문서(paper)를 보고 번역하는 것과 달리 영상번역가는 영상을 보면서 작업한다는 특징이 있다. 영상번역은 비디오번역, 영화번역, T.V 영화번역으로 나뉘는데 그 내용과 특징은 각각 다음과 같다.

1)비디오 번역가:비디오 물을 번역한다. 비디오물은 번역된 대사를 화면밑의 자막을 통해 내보내기 때문에 번역자체를 비디오 자막의 규격에 맞추어야 한다는 형식적인 제한이 있다.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가로로 16자씩 2줄, 모두 32자가 가능하다. 어떤 긴 대사도 이 32자만으로 표현해야 한다.

2)영화번역가: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번역한다. 영화의 경우는 세로로 7자씩 3줄 총 21자가 허용된다. 이 21자 안에 모든 대화를 표현해야 한다.

3)T.V 영화번역가:T.V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번역한다. 이는 비디오 영화번역과는 달리 대사를 성우의 더빙을 통하여 맞추어야 하는 제한이 따른다. 예를 들어 'I Love You'라는 대사를 번역할 때는 이를 외국어로 읽으면 '아이 러브 유' 즉 5자로 읽히지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의 우리말을 5자로 표현해야 한다. "정말 사랑해" 이런 식이 된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T.V영화번역은 영상번역중 가장 어려운 일에 속한다.

이처럼 영상번역가는 외국어를 잘 알아서 대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하기도 하지만 언어를 압축하여 적절한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작업의 80%이상이 대본 없이 화면만을 보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해 실력외에 해당 외국어에 대한 회화는 필수적이다. 여기에 풍부한 상식도 요구된다

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상번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T.V 영화번역가 40여명을 포함, 모두 100명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번역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대해 특별한 자격을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해당 외국어를 잘 알아야 하기때문에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거나 통역대학원을 나오면 좋다. 대개 외국에서 3-4년 정도 살고 왔거나 어학실력이 그 정도 수준에 이를 것을 요구하며 영화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 이일을 시작하기 위해 영화는 최저 100여편, 보통은 300-400편을 본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것은 풍부한 상식, SF, 물, 댄서물, 오락영화, 스포츠 영화등 수많은 종류의 영화를 번역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업으로 여러가지 작업을 할 때가 많기때문에 다방면에 걸친 풍부한 상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다면 가정주부나 장애인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업이다. 이일은 비디오 한대만 있으면 당장 작업에 들어갈 수 있고 집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현재 영상번역가의 70-80%가 여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상번역가를 교육하는 특별한 기관은 없다. 그래서 통역대학원을 다니거나 학원, 외국에서 거주하는 법등을 이용하여 해당 외국어에 대한 충분한 실력을 쌓은 후 기존의 번역회사에 입사, 수습기간을 거쳐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인맥을 통해 주변관계자를 소개받는 방법과 방송작가협회를 통하는 길이 있다. 유선방송이 활성화되면 영상번역가의 수요가 크게 늘것으로 전망된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유망직업이다.

〈배명희 기자〉

## “짧고, 재미있고, 정서에 맞을 것!”

“저학년 동화책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쑥쑥문고1/우리 나라 동화 모음  
바람 도깨비



쑥쑥문고2/우리 나라 옛날 이야기  
토끼 불알을 만진 노루



쑥쑥문고3/세계 동화 모음  
초록 여우



쑥쑥문고4/세계 옛날 이야기  
장난꾸러기 코피트코



몸도 쑥쑥, 마음도 쑥쑥 - 우리교육의 <쑥쑥문고>

저학년 아이들에게 좋은 읽을거리는 우선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이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구어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책을 자주 접하게 될 때 아이들의 책 읽는 습관과 더불어 책 읽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글이 많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에게 읽힐 만한 동화책을 찾는 일이 선생님들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어린이 책을 골라 내고 그것의 보급을 위해 십여 년간을 노력해 온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정성을 다해 저학년을 위한 동화를 찾아 엮었습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역음/각권 3,500원

우리교육

730 1527 출판부  
740 1273 편집부



# 학부모회 겨울 방학 안내

## 인천지부

〈어린이 동물교실〉  
일시: 1월9일~17일 10:30~12:30  
장소: 전교조 사무실 밝은 터  
대상: 국민학생  
회비: 20,000  
문의: (032) 525-8342

## 전주지회

〈전주지회 연수〉  
일시: 1월25일 오후 2:30~  
26일 오전 10시까지  
강의내용: ① 교육의 평등화  
② 교육행정 용어  
강사: 김천기 (전주대 교육사회학  
과 교수)

## 서울지부

◆ 강서남 지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는 연극〉  
제목: 겨울보기  
장소: 하늘땅 소극장 (해화역 하  
차, 마로니에 공원 뒤)  
신청: 1월 20일까지  
관람기간: 2월 말일까지 언제나  
입장료: 어른 10,000  
학생 8,000  
할인 입장권 문의: 634-6508

## 이리지회

〈제5기 출범식〉  
일시: 1월12일 오후 3시  
장소: 사무실  
문의: (0653) 856-0340

## 울산지회

〈어린이 역사기행〉  
일시: 1월18일~20일  
장소: 서울 (창덕궁, 종묘, 경복

궁, 고구려전 관람, 국립  
중앙박물관, 청와대, 사직  
단, 덕수궁, 국회의사당,  
수원성, 잠실주경기장)  
대상: 국민학교 4, 5, 6학년  
회비: 68,000  
문의: (0522) 46-0677

## 부산지부

〈7회 어린이 역사기행〉  
일시: 1월23일, 24일  
장소: 안동 하회마을 등  
안동일대  
대상: 국민학교 3~6학년  
문의: (051) 247-1795

## 마산지회

〈월례회 및 이·취임식〉  
일시: 1월13일 오후2시  
장소: 사무실  
문의: (0551) 48-6264

## 알림

〈전주지회〉  
학부모 산업체 방문  
일시: 1월23일 10시  
장소: 한솔제지  
문의: (0652) 231-6242

〈사계절, 학부모 동화교실〉  
사계절 출판사에서 좋은 동화  
고르기, 동화 속 우리말, 아동  
문학평론, 명랑동화의 문제점  
등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일시: 1월11일~4월19일 (12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12:00  
장소: 사계절 출판사 이벤트 홀  
회비: 6만원 (교재 및 자료비 포  
함)  
문의: 사계절 출판사 교육사업부  
736-9380

## 학부모가 볼만한 비디오

### ■ 베토벤 2

주연: 찰스 그로딘, 보니 헌트  
감독: 로드 다니엘  
엄청난 식사량과 천하장사 같은 힘을 자랑하는 세인트 버나드  
종 베토벤. 이번엔 애인 미씨와 4마리의 말쑥꾸러기 새끼들을 동  
원해 뉴튼 일가를 끊임없는 소란속으로, 우리에게 4배의 웃음을  
 선사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미씨의 여주인 레지나의 휘방을 해쳐  
나가는 뉴튼 가족의 사랑만으로도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에 충분한  
영화가 될 것이다.

### ■ 위대한 승부

주연: 조 만테그나, 로렌스 피쉬번  
감독: 스티븐 자일리언  
미국의 천재 체스 선수 조시 웨이츠킨의 아버지가 쓴 '바비 피  
셔를 찾아서'를 영화화한 작품. 제2의 바비피셔를 만들기 위해 스  
포츠 기자였던 프레드는 자신의 7살난 아들을 체스계의 거물에게  
교습받게 한다. 승부에 집착하는 어른들에 치여 자신감을 점차 잃  
어가는 조시의 갈등을 눈치 챈 어머니는 그에게 체스의 재미를 되  
찾아 주기 위해 공원의 체스 도박꾼을 찾아간다. 재능하나로 체스  
계에 뛰어든 때문지 않은 순수영혼, 조시 웨이츠킨을 진정 한 승리  
자로 키웠던 진한 가족애가 감동적으로 묘사된 작품. 〈선들러 리  
스트〉의 각색을 맡은 스티븐 자일리언의 감독 데뷔작이기도 하다.

## 어린이를 위한 책(저학년)

—역은이: 어린이 도서연구회(우리교육 출판)

### ■ 바람 도깨비

이원수, 권정생, 이현주, 손춘익 등 우리나라 아동 문학의 발전  
을 위해 애써 온 동화작가들의 작품이 12편 실려 있습니다.

### ■ 도끼 불알을 만진 노루

이 땅에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살아온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  
장하는 전래 동화만을 묶어 놓았습니다. 모두 14편의 동화가 실려  
있습니다.

### ■ 초록 여우

세계의 창작 동화 22편이 실려 있습니다. 작품의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는 처음 소개되는 동화여서 내용이 상당히 새롭습니다.

### ■ 장난꾸러기 코피트코

포르투갈, 인도,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에이레 등  
세계 각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래 동화 13편이 실려 있습니다.



## 두밀분교를 기억하시지요?

경기도 가평에 작은 학교, 두밀분교폐교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학교를 되찾아 주기 위해  
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금번 두밀학교살리기  
연대모임에서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사대 졸업하신 분이면 좋겠  
습니다. 방학동안 아이들과 함께 보낼 선생님(한시적)

###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기종을 바꾸시려는 분이 쓰시던 것을 주신다면 아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되도록 286이상이면 좋겠습니다.

### 학습기자재, 책

아이들 학습에 필요한 참고서, 문제집 기타 보조자료들이 부  
족합니다.

**연락처** 두밀학교살리기연대모임 이정진(전화: 678-9167)  
두밀학교 학부형 장호순(0356-82-8615)

산하어린이가 100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권정생 · 위기철 · 신경림 · 이현주 · 현 덕 · 윤기현 · 지동환 · 강정규 · 이재복 · 임길택

## 한국 아동문학을 빛낸 작가들 그들이 바로 〈산하어린이〉 작가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습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 그동안 서울 YMCA · 서울 YWCA · 문화체육부 ·  
어린이도서연구회 · 국립중앙도서관 · 마산 YWCA · 좋은 책 만들기운동 연합회 ·  
창원 YWCA · 군산 YMCA · 어린이 문화 진흥회 · 마산 YWCA · 부산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있는 책입니다.

### ● 새로운 책

산하어린이 - 72

이오덕 글 이야기

〈우리 어린이 글쓰기의 참고과서〉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는 사람다운  
살과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는  
참교육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도서출판  
**산하**

전화 392-7641 팩스 33-2582

### ▶ 생애이야기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11 자라는 환경박사 김현아  
16 너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18 공부해 왜 해야 하는 한 교실 어린이  
29 통일은 참 쉽다 동시 · 동화  
34 혼자서 쓰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35 날마다 쓰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36 민요기행 신경림  
41 나뭇잎 교실 윤태규  
51 천연기념물 탐험대 나은경

### ▶ 과학이야기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관준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광영  
62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63 끊임없이 파고든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64 약학같이 달라 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역사이야기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상  
3 4 5 임궫정과 일궫형제들 1·2·3 김우일

### ▶ 인물이야기

7 전태일 위기철  
33 윤동주 정진규  
49 신채호 김서경  
73 목수의 아들 예수 최선주

### ▶ 장작동화

1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8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김 목  
9 하느님의 눈을 권정생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13 신나는 교실 윤태규  
14 바보와 바보 박상규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19 달꼬마이 이상권  
20 하루나라 하루왕 이준연  
21 상계동 아이들 노경실

22 따뜻한 사람 박상규  
23 키다리 풍선 장수 이자씨 유재홍 이현주 외  
24 도둑 마을 장문식  
25 회초리와 혼장 윤기현  
26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27 아기 장수 조호상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권  
30 섬마을 아이들 신중행  
32 아이쿠나 호랑이 윤태규  
37 어리석은 독재자 윤기현  
44 천구 없는 웃살아 이재복  
45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46 작다고 깎보다 큰코 다쳐요 이재복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48 김철지의 매주콩 이재복  
54 팔죽할머니와 독대 지동환  
55 시장이 된 풀밭장수 박상규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57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권정생  
65 피리 부는 소년 이주홍  
66 서울에 온 어린왕자 1·2 오용욱  
69 느름글 아이들 임길택  
70 71 큰소나무 1·2 강정규